

2010

1월 31일

제18권 5호
마데테스

영국 국교회로 옮겨와서 교회는 믿음의 기쁨되고 용서되고 사랑되고

대한예수교장로회

온석교회



칼럼 column

● 구원에 집착하지 말라 ●

신자들 가운데는 자신이 정말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에 대해 궁금해 하는 경우가 있다. 왜 자신의 구원에 대해 궁금해 할까? 물론 사람이 예수를 믿고자 한 가장 중요한 이유와 목적이 자기 구원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당연한 궁금증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의사나 결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한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믿음은 인간의 의사 결정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신 결과다. 믿음을 인간이 자기 구원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스스로 예수를 택한 것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지만 그것은 단지 기독교라는 종교를 택한 것일 뿐 믿음과는 상관이 없다. 그런데도 그것을 믿음으로 착각한 사람들이 오직 자신을 위해 예수를 활용하는 종교에 머물러 사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 구원에 대해 궁금해 하면서 구원에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방법에 관심을 가지기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개인구원에 집착하는 인간의 욕망일 뿐이다. 즉 자기 구원을 점검하고자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복음과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신자는 하나님이 자신을 택하시고 부르셨음을 믿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믿음조차도 자신의 의지와 결단의 결과가 아니라 철저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어진 은혜임을 믿는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신자는 자신을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뜻이 나 자신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지해야 한다.

성령이 신자에게 활동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 각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위해서다. 다시 말해서 옛 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충만케 하시고자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신자를 이 일에 동참시키기 위해 택하시고 부르신 것이다.

그러므로 신자는 자기 구원으로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된 것으로 기뻐해야 하는 사람인 것이다. 그래서 신자에게 구원은 단지 '죽어서 천국 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참여한 것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자기 구원에 집착하게 되면 결국 '나는 구원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를 생각하게 되고, 그 생각은 또한 자신의 행함을 돌아보고 구원 여부를 판단하도록 미혹할 뿐이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 즉 구원의 안전지대에 머물기 위해서 부지런하고 선한 행함을 하려고 애쓰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구원이 '인간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것이 되기 때문에 복음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것이다.

신자는 자기 구원에 집착할 이유가 없다. 십자가는 개인 구원을 위한 용도로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언약의 결과물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이루신 결과가 십자가란 것이다. 그래서 신자는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구원을 보는 것이 아니라 구원 받을 수 없는 인간을 십자가의 자리까지 끌고 오시고 예수의 피로 죄에서 건지신 그 사랑을 보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감사는 것이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언약 자손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다.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1113-8 421-9049 425-9049 070-7648-9049
<http://onlycross.net> 신윤식목사 sys5806@hanmail.net 019-832-9049

주일낮 설교



신앙의 본질 마 11:20-24

■ 유대인과 이방인

이방인이라 함은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인 자신들 외의 사람들은 모두 이방인으로 부르면서 무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기독교 역시 예수 믿기를 거절하고 교회에 나오지 않은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유대인과 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교회 다니며 예수 믿는 우리는 천국가지만 예수 믿지 않는 너희는 모두 지옥 간다' 는 시각으로 이방인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율법을 내려주신 민족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거절하였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스스로 지칭하는 그들 역시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한 멸망의 존재라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끝까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율법을 받은 사람이고, 율법을 지켜 행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근거 삼아서 자신들 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없다는 고집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유대인들의 이러한 착각의 세계가 오늘날 기독교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세태인 것입니다.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입니다. 신자가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음을 받으신 분입니다. 저주의 죽음이라 함은 죄 값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즉 죄인인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의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의 대표자로 저주의 잔을 마셨고, 하나님은 아들의 순종을 통하여 생명의 나라를 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세우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그들만이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여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나는 예수님을 그렇게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믿고 있다' 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

지만 19절의 끝에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 함을 얻느니라" 는 말씀처럼 믿음 역시 그 행한 일로 인하여 그 믿음의 옳음이 증거되도록 되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행함이란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은 그것은 음식을 먹을 때는 손을 씻는 등,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것이었고, 따라서 부정한 자로 취급되는 세리나 죄인들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고, 세리나 죄인들과도 함께 하심으로써 유대인들로부터 '먹기를 탐하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는 비방과 함께 배척을 받았습니 다. 자신들의 믿음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도 비록 스스로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믿음의 의미를 모른 채 유대인과 같은 사고방식으로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로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보실 때 이방인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주지해야 할 것입니다.

■ 권능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보면 한 가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서가 모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행하신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같은 사건에 대해서도 그 기록 순서가 각기 다르다는 것입니다.

가령 본문의 얘기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씨뿌리는 비유와 변화산의 사건 다음에 70인의 제자를 파송하실 때 하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마태복음에서는 씨뿌리는 비유나, 변화산의 얘기가 등장하기 전에 본문의 내용이 기록된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복음서는 역사적인 순서는 무시한 채 저자가 증거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어서 사건이 배열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 사상과 종교적인 사고의 잘못됨을 드러내면서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참된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는데 그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마태 역시 이러한 시각에서 여러 사건들을 역사적인 순서와 상관없이 자신이 증거하고자 하는 주제 안으로 모아서 예수님을 증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태가 이런 사건들을 모아서 증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1장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나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3절)라고 질문 한 것으로 시작하여 지난 주 말씀드린 아이들의 장터 놀이 비유까지 한결같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는 현실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자신들의 종교와 맞지 않고 함께 어울리지도 않는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이 세상의 세태라는 것에 대해 지적을 하셨습니다. 본문은 이러한 세태에 대한 책망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의아하게 하는 것은 유대인들을 책망하기 위해 비교 대상으로 말하고 있는 지역이 두로와 시돈, 그리고 소돔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유대인들이 멸망의 자식으로 여기는 이방인들이고, 더구나 소돔은 하나님에 의해 멸망을 받은 악한 땅입니다. 그런데 심판 날에 두로와 시돈이, 그리고 소돔 땅이 더 견디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처하는 유대인들이 왜 이런 책망을 받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권능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입니다.

20,21절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 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신아 화 있을진저 벳새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결국 이 말씀은 예수님의 권능은 유대인으로 하여금 회개를 촉구하는 증거의 권능이었는데, 정작 예수님이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과 다를 바 없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신다고 해도 회개하지 않을 것이기에 심판 날에 두로와 시돈이 견디기 쉬울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고라신이라는 지역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권능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벳새다에서는 오병이어의 권능을 행하시고 (눅 9:10) 소경을 고치신 일(막 8:22)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에서는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시고, 베드로의 장모와 중풍병자 그리고 많은 귀신들린 자와 병자를 고쳐주시는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행하신 권능을 보고서도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이 책망의 이유입니다.

■ 권능을 보고 해야 할 회개는

그러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권능을 본 유대인이라면 회개했어야 그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자라는 뜻인데 과연 권능을 보고서 어떤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일까요? 권능이 회개한다면, 결국 예수님은 권능을 행하심으로써 유대인들의 죄를 드러내시고 책망하셨다는 것이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예수님이 행하신 권능은 거의가 문둥병자와 귀신들린 자, 그리고 병자들을 고쳐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유대

사회에서는 저주받을 자로 분류되어서 배척을 받고 유대사회에 함께 어울릴 수가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는 일을 하시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사실에 의문을 품었을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은 권능을 행하심으로써 예수님은 어둠에 갇힌 자들에게 빛으로 오신 생명의 주라는 것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즉 참된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굳게 세우기 위함이 아니라 어둠에 갇힌 자기 백성을 구출하고 그들에게 생명이 되어 주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이 어둠에 갇힌 존재임을 아는 자이고,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라는 것을 권능을 행하신 것으로 증거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어둠에 갇힌 자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야 말로 하나님의 참된 선민으로 여겼기 때문에 권능을 보고서 회개하기는커녕 세리와 죄인들에게 함께 하신 예수님을 비방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21절),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23절)**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방인에게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의식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율법을 받은 자라는 조건 또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처럼 구원에 대한 자기 조건과 자기 원칙, 그리고 자신의 종교세계에 묻혀 있지 않은 자들이 예수님의 권능을 보고 회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회개일까요? 그것은 자신이 어둠에 갇혀 있으면서 어둠의 백성임을 몰랐던 것, 그리고 자신의 도덕과 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구별하고 차별했던 이런 회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신자라면,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 하시고 문둥병자와 귀신들린 자들을 고치시는 권능을 보면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는 여긴 것이 교만이고 착각이었음을 알아야 하는 것이고, 자신은 저주의 자식에 지나지 않는다는 자기 본질 위에서 주를 바라보지 않음으로 사람에 대한 차별과 구별이 나오게 되었음을 회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 신앙이란

예수님이 행하신 권능은 단순히 병을 고쳐주시는 기적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문둥병자나 귀신들린 자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신 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밖에 없는 편견이나 구별과 차별을 초월한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으로 어둠에 갇힌 우리에게 생명으로 다가오신 것입니다.

신자란 바로 예수님의 이 사랑에 의해서 새롭게 창조된 존재이고, 신자는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이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에게는 이 사랑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편견과 구별과 차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그 사랑이 여러분을 어둠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나 단순히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다' 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자기중심적인 사랑일 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얽히기 쉬운 그 어떤 인간관계에도 얽히지 않은 사랑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있는 자존심과 체면과 고집이 전혀 개입되지 않은 사랑입니다. 신자는 바로 예수님의 이 사랑에 의해 생명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권능을 행하심으로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권능을 보면서 내의 자존심과 체면과 고집으로 멎어 있는 자신을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는커녕 훼방하는 훼방자로 존재하게 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의 권능을 알고 깨달은 신자라면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자각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회개가 있는가를 물으시는 것입니다.

신자라면 누구나 말씀을 들을 자이지 자신이 아는 말씀을 토대로 누군가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자신들이 알고 있는 율법을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였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율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저주 받을 자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는 율법을 잘 안다고 하는 그들이야말로 율법에 무지한 사람들이었고 율법을 지키지 않은 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그 마음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은 우리에게 생명이고 위로고 힘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누군가를 판단하는 자로 만들지 않습니다. 나의 무능과 약함을 보게 하면서 항상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누구도 복음 앞에는 들을 자로 서게 되는 것이고, 복음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가 살면서 겪는 아픔과 상처가 다스려

지고 덮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목사라고 해서, 장로라고 해서, 판단자의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목사이기 때문에, 또 교회를 오래 다녔고 장로고 집사라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듣기 보다는 자신이 알고 있는 말씀으로 타인을 판단하는 판단자의 자리에 있으려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자신에게서 보인다면 '과연 나는 예수님이 행하신 권능 앞에 회개한 자인가?' 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것이 진리의 길을 가는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신자 된 증거입니다.

주일오후 설교



복음의 노망

골 1:18-23

(6강 1.3일 설교)

사람은 자신의 눈에 비추는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서 항상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는 아쉬움과 함께 부족함을 느끼고, 그 부족함으로 인해서 인생의 행복까지 상실한 채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자라고 이름하는 우리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사도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18절)라는 말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들을 주시고 아들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써 충만의 세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 곧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늘 부족하다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나에게 주어진 것이 너무 작다고만 생각합니다. 신자면서 왜 이런 생각을 떨쳐 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세계보다는 보이는 세계에 더 집착하기 때문이고, 보이는 세계에 집착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세계의 존귀함과 그 가치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30대, 40대의 현재의 자신을 생각하지 마시고, 70대, 80대의 자신을 미리 당겨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 훗날의 모습이 아닙니다. 금방 여러분께 다가올 현실입니다. 그 현실을 당겨서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일지 내일이 마지막일지 알 수 없는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에게 세상의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호화로운 집이나 많은 돈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육신은 편할지 몰라도 세상을 떠난 다음의 일을 생각한다면,

신자에게 예수님은 인생의 전부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점을 가볍게 여기고 놓치면서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이 집중되기 때문에 예수 안에 충만이라는 복된 세계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충만의 세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믿고 충만해지는 복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거짓 선생들의 복음이었습니다. 사도의 복음은 예수 안에 완성된 충만의 세계를 증거하는 반면에, 거짓 선생은 예수를 잘 믿으면 세상의 것으로 충만해지는 복을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말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고 말합니다.

사도의 말은 아버지께서 자기 백성을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신 그것이 뭐가 하면 십자가의 피로 이루어진 화평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이 사도가 말하는 모든 충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원수된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 이 관계를 완화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끼리 원수된 관계는 어느 한쪽의 노력으로 그 관계가 완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가 친구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그 어떤 노력으로도 변화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그 어떤 노력도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가 되게 한 죄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예수님의 피로 인해 화목의 관계로 뒤바뀐 것입니다.

21,22절을 보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과의 화목은 하나님 앞에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움을 받은 것을 뜻합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그로 인해서 생명을 잃어버린 채 영원한 저주에 갇히게 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움을 받게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기적이요 복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예수 안에서 충만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의 신자에게는 무엇을 하고 안하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를 안하고 성경도 안봅니다’ 라는 자책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온다면 하나님께서는 ‘나는 네가 기도하고 성경 보는 열심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이 흘린 피를 보고 있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의 열심으로 자기 믿음을 좀 더

좋은 믿음으로 만들려고 하고, 자신의 좋은 믿음을 근거로 해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의 거짓 선생들이 말하는 할례를 하고 절기를 지키는 것이 좋은 믿음이라는 말에 미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움 받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이미 이루어진 복된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는 거룩하고 흠 없는 자로 세움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악함을 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충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로를 믿는 것이고 예수님의 의를 믿는 것입니다. 때문에 신자가 열심히 노력해서 더 좋은 믿음이 될 것을 요구받는 것은 예수 안에서는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는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사하고,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써 기뻐하고 그 기쁨으로 인해 충만한 세계를 누리는 것이 있을 뿐입니다.

23절을 보면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 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고 말합니다.

신자는 예수님이 화목이 되심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 없는 자로 세움 받았다는 복음이 소망이 되어야 하고, 그 복음에서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그럴 때 거짓 선생들의 미혹에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함을 보면서 행함이 적어서 자기 믿음을 의심하고, 그래서 더 나은 믿음이 되기 위해 열심히 실천해야 한다고 여기는 비복음의 생각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신자는 깨끗하고 흠 없는 사람이 되기 위해 힘쓰고 노력해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미 흠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예수 안의 세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흠이 없고 깨끗하다’ 는 자랑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흠 없는 자로 여김 받는 자신을 자랑할 자가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 앞에 흠 없는 자로 세우시는 예수님의 피의 은혜를 자랑하고 감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아는 신자입니다.

은혜를 자랑하고 감사하는 것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가 살아가는 삶이 세상의 것으로 부족함을 느끼는 것 보다는 예수 안에서 충만한 세계를 사는 신자답게 주어진 것에서 감사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물론 견디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서 예수님으로 감사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신도 모르게 원망이 나오게 되고, 믿지 않는데도 자신보다 잘 사는 사람을 보게 되면 허락과 같은 불평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신자를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하신 그 일을 보게 합니다. 그렇게 하셔서 견디기 힘든 어려운 상황에서도 소망이 주께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순간이 주의 말씀과 복음이 귀로와 힘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깨달음이 계속 지속되지 못합니다. 여전히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흔들리는 인간은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붙들시면서 예수 안에 있게 하십니다. 신자의 신자 됨은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결과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충만이라는 복음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그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를 믿는 믿음의 세계가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일하고 계시고, 예수님의 일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복음의 세계로 인도받을 수 있다면, 신자가 주를 바라보고 그 주로 감사하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예수 안의 충만의 세계를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것이 없다고 해도 그것이 부족함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신 예수님이 충만으로 다가오는 그런 복음의 세계를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을 믿는 신자가 복된 자인가를 알고, 그 앎이 여러분을 믿음의 기쁨과 감사를 증거하는 삶으로 인도해 감으로써 믿음의 증거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요일 설교



이방나라의 죄

암 1:3-15

(2강 1.13일 설교)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등장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증거인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외적으로 본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할 정도로 정상적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로 가장 부강해진 상태였고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치는 것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이 보였던 때였습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문제가 없고,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복을 주셔서 이렇게 잘살게 하신 것이 아니냐’ 라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시절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모스를 등장시켜서 이스라엘의 죄를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방인의 죄를 먼저 책망을 하시고 그들에게 임할 심판에 대해 말씀을 합니다.

이방인의 죄를 책망하시려면 해당되는 나라에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을 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즉 일본의 죄를 책망하시고 심판을 경고하시려면 일본으로 사람을 보내는 것이 옳는데, 한국에 사람을 보내서 일본의 죄를 책망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에 문제가 있어서 선지자를 보내신 것이라면, 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하시면 되는 것인데 왜 굳이 이스라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이방인의 죄를 먼저 언급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다메섹과 가사, 두로, 암몬, 에돔을 언급하면서 그들의 서너 가지 죄에 대해 책망을 합니다. 모든 나라가 동일하게 서너 가지 죄로 언급되고 있는 것은, 그들의 모든 죄가 같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사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죄는 그 행동의 여부로 구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죄는 행동을 가지고 죄의 경중을 따집니다. 가령 도둑질과 살인이 똑같이 벌을 받아야 할 죄이기는 하지만 죄의 경중은 같지 않습니다. 도둑질 보다는 살인을 더 무거운 죄로 여기고, 살인한 자에게 더 무거운 벌을 내리는 것이 죄에 대한 세상의 상식이고 질서고 원칙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방인의 죄를 보면, 죄의 행위들이 모두 악하기는 하지만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다메섹은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3절)고 말하지만, 가사는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6절)고 말합니다. 두로 역시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라” (9절)고 그 죄를 말하고, 에돔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11절)고 말합니다. 그리고 암몬의 죄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 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13절)고 말합니다.

이들이 행한 악행 가운데서 가장 악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이 벤 여인의 배를 가른 행위입니다. 또한 단지 길르앗을 압박한 것보다는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팔아넘긴 행위가

더 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죄에 대한 세상의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판단한다면 각기 다른 심판이 내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모스는 그 모든 죄를 행한 이방 나라들에 동일하게 불을 내려서 그 궁궐들을 사른다고 말합니다. 동일한 심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심판은 그들의 악함이 동일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방나라의 악행은 비록 다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는 그들의 죄는 동일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방 나라의 죄를 말씀하시고 2장에서 유다와 이스라엘의 죄를 말씀하시는 것도, 유다와 이스라엘의 죄가 이방인과 동일함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방 나라의 죄를 선포할 때 이스라엘은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방 나라와 유다와 이스라엘이 동일한 악을 행하는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한 것입니다.

신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이방인과 예수를 믿는 자신은 죄에 대해서는 다를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은 용서 받을 수 없는 죄 가운데 있지만, 신자인 자신은 죄를 범해도 용서 받을 수 있는 자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모두가 용서받을 자는 아닙니다. 이방인과 다를 바 없는 사고방식으로 산다면, 교회를 나오든 나오지 않던 그들은 모두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이방인일 뿐임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당시 이스라엘은 외형적으로는 신앙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이방인과 동일한 취급을 받는다면, 신앙이나 죄 문제는 인간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방인의 죄에서 동일한 것은 강자가 약자에게 행하는 횡포입니다. 그 행동은 비록 다르지만 강자로서 약자를 억압하고 자신의 강함을 과시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이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악함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본질을 보시는 것입니다.

전쟁을 해서 승리한 나라는 패배한 나라의 백성을 포로로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포로를 다른 나라에 노예로 팔아서 재산을 축적합니다. 이것을 승리한 강자가 마땅히 누리는 결과물로 여깁니다. 즉 이방 나라는 승리의 배경에 누가 존재하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강함과 힘으로 얻은 승리이기 때문에 승리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약자는 강자에 의해 고통을 받고 억압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서너 가지의 죄로 표현을 하시면서 불로 심판을 받아야 하는 악으로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든 이방인과 같은 사고로 산다면 이방인과 똑같이 대우하시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기도 합니다.

신자는 죄에 대한 시각이 달라져야 합니다. 이방 나라를 향한 책망을 보면 우리는 이방 나라와 같지 않고 따라서 죄와도 거리가 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시 유다와 이스라엘도 동일한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저렇게 악행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비하면 참으로 믿음이 있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역시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뉴스에 나오는 악행을 저지른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에 비해 나는 더 낫다’ 는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드러나는 외적인 행동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자신과 비교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안 한 사람보다 하는 사람이 더 낫고, 한 시간 하는 사람보다 두 시간 하는 사람이 더 낫다는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악하게 보시는 것은, 세상의 것을 힘으로 여기면서 그 힘의 여부로 사람을 판단하고 다르게 대하는 습성입니다. 이러한 습성은 자신에게 관심을 두고 오직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인간관계에서는 피할 수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악하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단지 약자를 억압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약자를 억압하니 심판을 받아야 한다면 하나님은 결국 도덕군자가 되십니다. 약자를 억압하지 말라는 것은 세상의 도덕과 동일한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세상의 것을 힘으로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고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주관하시는 분으로써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무엇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도, 자신의 위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안다면 스스로를 강자로 여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약자를 억압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무시하는 사고방식을 배경으로 하기 있기에 악하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신자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면 세상의 것이 많고 적음에 따라 강자와 약자로 구분되어질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강자는 존재하지 않음을 아는 것입니다. 누구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알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것도 은혜의 것으로 바라볼 뿐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있는 신자의 삶의 정신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자에게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될 만한 행동이 나온다면 그 역시 은혜일뿐입니다. 때문에 어떤 행동으로도 자신을 과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각입니다.

주일 낮 예배

오전 11시

인도 / 신윤식목사

묵상기도	다 암 께
사도신경	다 암 께
찬 송	14장(통30)
교 독 문	85(요일4)
기 도	이영민 장로
찬 송	450장(통376)
성경봉독	마 11:20-24
설교제목	신앙의 본질(74강)
기 도	설 교 짜
찬 송	314장(통511)
교회소식	이영민 장로
찬 송	5장(통3)
축 도	설 교 짜

다음주기도 : 이영민 장로

주일오후 예배

오후 2:20

인도 / 신윤식목사

사도신경	다 암 께
찬 송	254장(통186)
기 도	장영옥 집사
찬 송	386장(통439)
성경봉독	골 2:1-5
설교제목	연합(10강)
기 도	설 교 짜
찬 송	208장(통246)
주기도문	다암께

다음주기도 : 조길옥 집사

수요일 예배

오후 7:30

인도 / 신윤식목사

아모스 강애(5강)

오늘은 내 마음에 비가 내리네

신윤식



그대들 가슴에 무엇들을 묻고 사시는가.
소리 없는 아우성으로 온 몸과 마음을
떨구어 놓고 그렇게들 사시는가.

그대들 무심히 가시는 길은 어디인가
크거나 작거나 가슴에 베인 상처를 털을 수 있고
내가 네가 되어 줄 수 있는
이곳을 두고들 어디를 가시는가.

심자가의 은혜에 동화되어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알게 모르게 다져진 주의 사랑 모두 털어내며
어디로 가시려는가.

사람을 보지 말라 했는데
사람의 마음을 보고 그대들 실망하셨는가.

사람을 상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
세상에 몸담은 사람이 사는 길인 것을
어찌하여 낙심하고 힘을 잃으시려는가.

오늘은 내 마음에 비가 내리네.
작게 크게 비가 내리네.
차가운 바람도 부네 그려

교회소식

1. 예배 후에 은석교회 권사 선출을 위한 투표를 합니다. 세례교인 되시는 분은 돌아가기 마시고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	시 간	예 배	시 간
주일 낮	오전 11:00	어린이	오후 1:00
주일오후	오후 2:20	장년성경공부	(주)오후 1:00
수요일	오후 7:30	청년성경공부	(주)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금요기도회	오후 8:00